

거룩한 새판짜기,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뉴스레터 News Letter 252호 주후 2021년 11월 11일(목)

‘Charting the New Normal, Moving beyond Restoration into Revival’

주여, 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옵나니 돌파구를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개인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려면,
나라에 대한 기도 제목과 방향이 확고히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라를 위한
민족 역사에 대한 의식이 확실해야 합니다.
이 민족의 역사 중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가 그 역사의 중심입니다.
비록 코로나로 한국교회가 고생을 많이 했지만,
특새를 통해 새판짜기하고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가고 이 민족의 역사 중심이 교회인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민족의 역사 중심이 다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면
우리는 영적 강국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개인에게도 꼭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강한 사람’ 되고,
하나님, 내가 ‘믿음 보고’ 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무장’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결코 낭비하지 않으시며,
마음을 다한 눈물의 기도가 민족의 앞날을
결정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파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11월 10일 오정현 담임목사님 후집회 중에서

한국교회의 ‘선교적인 영성’,
해외 한인 디아스포라가 갖는 ‘국제적인 영성’,
북한 지하교회의 ‘순교적인 영성’

<성탄트리 점등식> 11월 14일(주일) 오후 5시

사진제공: 뉴스네트워크실

TODAY'S PRAYER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 1 특새무릎으로 평생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온 영가족 모두가 성령님의 임재 안에 높은 찬양과 축적된 기도를 올려드릴 때, 삶의 모든 짐이 벗겨지고 영혼의 세포가 춤추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 2 특새기도준마를 타고 은혜의 평원을 달릴 때 모든 영역마다 거룩한 새판짜기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3년 이내에 한국교회가 글로벌화 되어 5년 이내에 미국교회와 협력하여 중국교회를 섬기고 7년 이내에 평양에서 특새하는 3·5·7 비전을 이루게 하옵소서.
- 3 한국교회의 선교적 영성, 이민교회의 국제적 영성, 북한교회의 순교적 영성이 하나 되게 하사 영적 강국을 이루게 하시고 세계선교의 마무리를 위한 은혜의 저수지, 사역의 병참기지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옵소서.



사도 바울의 위대한 기도들

(엡 3:18)

찰리 스크라인 목사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코로나로 힘든 상황 속에서 성도는 교회를 더 잘 섬기기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교회는 어지러운 세상과 세속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먼저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교회를 세우기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깨닫기를 권면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한 가족이 된 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에베소교회는 유대인 남성과 이방인 여성이 식탁의 교제를 나눌 정도로 당시로서 충격적인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양자 삼으시고, 구원하시고, 일으키시고, 앉히시고, 연합시키신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우리를 세상에서 강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살려내심 (고전 1:18~25)

윤치영 목사



“십자가의 도”(고전 1:18)는 영어성경에 “The message of the cross”로 표현됩니다. 이것은 골고다에서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롬 1:16). 십자가의 도와 복음에는 “죄”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가 전제되어야만 십자가의 도가 필요하고, 죄 때문에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하여 멸망당한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 복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기에 복음과 십자가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위치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마 1:21). 우리는 죄로 인하여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는데, 이 고난도 궁극적으로는 유익이 됩니다(벧전 5:10; 롬 8:18; 시 119:71).

부흥 열전 On

박해를 초월하여 부흥의 이력을 쓰는 중국교회

중국 선교의 첫 발은 1807년 영국선교회에서 파송된 모리슨(Robert Morrison)의 사역입니다. 그는 연해지역 중심으로 27년 간 헌신적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열매는 세례교인 10명이었습니다. 1840년 발생한 아편전쟁으로 연해지역인 광저우, 샤먼, 푸저우, Ningbo, Shanghai 5개 해안도시에서 선교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됩니다. 1854년 허드슨 테일러(James Hudson Taylor)는 선교의 지경을 해안에서 내지 깊숙하게 옮겼고, 이를 계기로 1894년까지 1,324명의 선교사들의 헌신이 이어졌습니다. 20세기 초, 선교사들의 발자취는 중국 거의 모든 도시에 이르렀고, 음악, 문화, 교육, 의료, 자선사업을 활발히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1900년 의화단 운동으로 1개월 만에 선교사 241명, 중국 성도 2만 명이 순교하게 됩니다.

박해 속에서 중국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은 더 강렬했습니다. 10년 후 선교사가 세운 학교는 의화단 운동 때 2,000개에서 무려 7,382개로 늘었고, 북경대, 칭화대, 복단대, 상하이공대, 남경대, 절강대, 산둥대, 사천대, 중산대학교 등이 이 시기 설립되고, 1919년에 칼빈 윌슨(Calvin Wilson Mateer)의 인도 하에 27년간 진행한 중국어 성경이 번역됩니다. 1950년대 들어 무신론에 근거한 공산당 정책, 1966년 문화대혁명으로 또 다시 기독교는 박해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신적개입으로 1978년 개혁개방정책이 추진되면서 약 600만 명, 1990년대 농촌지역 중심으로 교회부흥운동이 일어났고, 2000년대 들어 도시 중산층까지 확산되면서 2030년에는 2억 4천만 명에 달해 세계 최대 기독교 국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교회 부흥은 오늘도 진행 중입니다.



모리슨



허드슨 테일러

중국과 중화권을 향한 사랑의교회 발자취 On



지난 2010년 11월 중국공산당 60년 역사 이래, 양회본부(북경시 기독교교무위원회)에 획기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 목회자인 오정현 목사가 강사로 나서 이 모임을 인도했습니다. 중국 내 제자훈련의 필요성과 중국 기독교 발전 필요성에 사랑의교회가 선봉장이 된 것입니다.

중국 현지 목회자들은 중국 내 기독교인들의 양육을 위해 사랑의교회 제자훈련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교회에 집회는 있었지만 양육은 없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에 사랑의교회는 즉각 응답했습니다. 2010년에 중국, 2016년에 대만, 2019년에 중화권 교회를 대상으로 제자훈련 세미나를 개최하여 중화권 제자훈련 사역에 새 지평을 열고, 중국 선교의 길을 주도적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향영 (여제자 6반)

제자훈련 소감

네 자녀를 양육하면서 훈련에 대한 열정은 식어갔고 제자훈련의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경건 생활과 교회 섬김을 통해 충분히 신앙생활의 유익을 누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순장님, 남편, 주변 지인들의 권유와 코로나로 예상하지 못했던 일상의 변화는 ‘훈련을 받아야겠다’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주었고, 이 마음으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훈련을 시작했을 때는 과제에 대한 부담이 컸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과제는 삶의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도록 이끌어 주었습니다. 상황과 감정에 상관없이 늘 말씀 앞에 있다보니 말씀을 보는 눈이 넓어지고 깊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무익한 종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강도 높은 제자훈련은 도전과 모험을 두려워하는 저의 기준과 틀을 모두 깨고 삶의 중심 축을 하나님께 옮기게 하였습니다.

제자훈련이 삶에 녹아져 예수님의 따스한 사랑과 위로가 흘러가는 사망자의 삶을 소망합니다. 가까운 가족과 친지들에게 복음의 통로로 쓰임 받고, 공동체에서 겸손하게 섬기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박재걸 (남제자 1반)

제자훈련을 받으라는 아내의 권유에도 왠지 모를 반발심에 미뤄왔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 특새를 전람하면서 하나님은 내 스스로 제자훈련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셨습니다.

제자훈련을 시작하면서 목사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부담이 되었고, 제자훈련을 끝까지 마칠 수 있을까 하는 염려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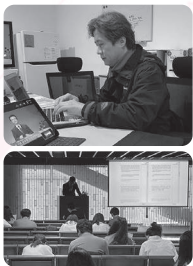
제자훈련 과정은 매주 쏟아지는 엄청난 과제와 암송 그리고 말씀으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낱알이 드러내는 시간이었고, 세상 속에서 나의 비뚤어진 자아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씩 벗겨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훈련을 받기 전에는 달콤한 현실의 유혹에 쉽게 넘어졌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섬기면서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훈련을 받으며 가시 돋친 내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에 접붙임 되어 점차 가시가 사라지고 자기 십자가를 묵묵히 짊어지는 온전한 제자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부름 받은 자와 보냄 받은 자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세상을 이기는 담대한 믿음을 바라고, 구하며, 기도합니다.

특새참여 실시간 중국 기도제목



“한국에서 박사학위를 마치고 중국으로 돌아와 대학 교수로 있습니다. 여전히 사랑의교회 중국어예배가 그림고, 무엇보다 특새가 가장 그림습니다. 베이징 현지시간 3시 25분, 온라인으로 엄마와 함께 그리웠던 특새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 Ruth

“상하이에 살면서 위챗으로 중국어판 <날샘>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날샘>에 있는 특새 광고를 보고, 처음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새를 통해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더욱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고난 중에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 Yanan

“한국에 대학생 딸을 유학 보낸 엄마입니다. 중국에 있을 때는 함께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지금 제 딸은 한국에서 교회 출석을 하지 않고 있다네요. 저는 온라인으로 특새 참여를 하면서 제 딸이 사랑의교회에 출석하기를 막막한 터널의 한 줄기 빛처럼 기도해 봅니다.” - Houge

“하나님은 남편과 함께 중국에서 캠퍼스 사역을 하게 하였고, 14년째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은 많은 제약들로 통제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더욱 중국의 다음세대를 어떻게 온전하게 섬길 지를 오늘 글로벌 특새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 Sofia Kim

※ 중국 현지 보안 문제로 가명을 사용하였습니다.)

내 삶에 기대하는 새판짜기는?

* 김지현 (frewil)

509. 내 삶에 기대하는 새판짜기는 <부흥의 세대계승>이다. 왜냐하면 신앙의 세대계승을 넘어 부흥의 세대계승을 꿈꾸기 때문이다.

* 김지운 (godg0dg0d)

491. 내 삶에 기대하는 새판짜기는 <주제사역>이다. 왜냐하면 내가 원래부터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음을 기억하면 나의 자량도, 이 세상의 어떤 기쁨도 구원의 무한한 감격에 앞설 것이 없기 때문이다.

* 김우재 (wjkm31)

483. 내 삶에 기대하는 새판짜기는 <약자되기>이다. 왜냐하면 얹어져 있어야 은혜 받고 뒤집어 지기 쉽기 때문이다.

* 문경진 (jammagirl)

513. 내 삶에 기대하는 새판짜기는 <새 판! 새 판!>이다. 새!롭게 하고 판!을 바꾸시고 새!임새 있게 내 삶을 이끄시는 주님만 기대하며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다.

* 이미숙 (nalee)

522. 내 삶에 기대하는 새판짜기는 <직장 복음화>이다. 왜냐하면 직장은 내 삶의 근간이면서 영적 전장터이지만, 특새의 말씀으로 새임을 얻고 대적이 아닌 사랑으로 보듬어 가아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 안진광 (nazarite)

447. 내 삶에 기대하는 새판짜기는 <with GOD>이다. 왜냐하면 '위'로부터 내려오는 '드'림(dream)이, 나를 '갓' 태어난 거룩한 새사람으로 변화시켜 주기 때문이다.

* 신주하 (jhyesa)

512. 내 삶에 기대하는 새판짜기는 <가정의 온전한 회복과 부흥>이다. 왜냐하면 가정에 닥친 고난으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게 하였고, 모든 어려움이 회복되고 이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 사랑을 전할 주춧돌이 되어 부흥을 사모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1. 기도주제

오늘의 기도 주제는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입니다.

2. 감사소개

*오늘: 카일 아이들먼 (Southeast Christian Church, 팬인가 제자인가의 저자)

'세상을 이기는 담대한 믿음' (요 16:33)

헬렌 김 선교사(아이티, DFI대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사 43:19)

*내일: 미셸 마르반 목사(프랑스 디종교회)

'양상을 복음 사역과 기도' (마 28:19-20)

현승원 의장(디쉐어)

'하나님께서 세우신 청지기의 삶' (사 43:19)

3. 주차 안내

교회주차장, 마제스타시티 지하 6, 7층: 월요일 - 금요일 2시 30분 - 7시 30분 까지 (이후 유료) GS파크 24: 2시 30분 - 7시 30분까지 (이후 유료), 성숙한 주차문화는 교회의 자랑입니다.

4. 특새 은혜게시판 활용

부흥의 현장인 특새의 은혜를 게시판에 담아두고 은혜의 수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일 말씀 은혜게시판이 아닌 <특새 은혜게시판>에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은혜게시판 450-700번을 작성한 성도님께서는 '프뉴마 마스크 파우치'를 드립니다. ('새판짜기' 작성자는 제외)

2) 뉴스레터지에 소개된 "새판짜기"를 작성한 성도님께 특새 'Limited Edition 부흥퍼즐'을 드립니다.

※ 모두 납품 1층 안내 데스크에서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 한국교회/ 세계교회 성도님께서는 Sarang On YouTube 영상 아래 '더 보기란'에 나와있는 <글로벌특별새벽부흥회 연합홈페이지>링크 globalrevival.sarang.org를 클릭하셔서 성함, 교회 이름과 함께 받은 은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화같은 주의은혜, 쏘지말고 달아두자

날마다 은혜입니다. / 이해경

남편은 20년째 새신자입니다. 그런 남편이 지난 주일 담임목사님께서 이번 특새에 올 사람 손을 들고 하시니~ 손을 번쩍... '이 사람이 어찌려고' 생각했습니다. 매일 새벽 1시에 잠자리에 들어오던 사람이 특새를 사모하며 주일 저녁 9시부터 잠을 청 하더니 오늘까지 특새 3일차 참석하고 그 길로 출근합니다. 딸과 함께 특새 완주를 기대합니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으로 여러 면에서 힘들지만 이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으니 이 또한 축복입니다.

마치 나를 향해 짝사랑하는 이의 편지를 발견한듯 / 천성범

마치 짝사랑하던 이가 미처 전하지 못한 사랑 고백의 편지를 발견한 듯한 감동이 오늘 전해졌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죄로 인해 죽을 수 밖에 없는 나를 대신하기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실 만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고백의 편지를 계절을 지나 옷장 속에 파묻혀 있던 옷속에서 발견한 기쁨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안내 봉사하는 아내 덕에... / 이용진

새벽 2시30여분에 도착했는데도 교회 주차장에 들어갈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며... 특

새를 사모함, 은혜를 사모함, 거룩한 능력에 대한 열정이...참으로 대단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됩니다. 영국 목사의 전철한 설교와 한국 목사의 구수한 설교를 동시에 경험하는 은혜 또한 감사할 뿐 아니라 특새 후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던 율해의 첫 눈이 왜 그리.. 반갑던지요. 참..♥ 감사한 하루입니다

초등 5학년 딸아이가 학교에서 친구 문제로 마음이 힘들고 불안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새를 준비하며 영적 가족인 제자반과 사역반, 다락방에 딸아이를 위한 기도제목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학교에 다녀온 딸에게서 힘들게 하던 친구로부터 진심어린 사과편지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아이의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함께 걱정해주며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어 감사했고, 특새 중에 믿음보고를 올려드릴 수 있음에 영광과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특새 중 믿음보고 / 노경준

100%부흥을 준비하는 교회개그 베스트 5

1. 크리스천이 알바를 하면 안 되는 성경적 이유는?
2. 예수님이 옷가게에 가서서 하신 말씀은?
3. 성경에서 가장 예지력이 뛰어난 자매님은?
4. 성경에 나오는 한국인은?
5. 아담이 절대 한국인일 수 없는 이유는?

*정답 ①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행1:7), ② 예루살렘 (예루 살렘-), ③ 미리암, ④ 엘리야김, 여호야김, ⑤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으로 보아 한국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 같으면 선악과 보다 뱀을 먼저 잡아먹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강원도 원주에서 올니다

넷째날

주여! 은혜의 빛을 주옵소서.
모든 묶인 것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출석표의 절취선을 오려 출석부에 붙여주십시오.

파이팅! 거룩한 성도들의 부흥의 포효, 원수의 멘탈을 흔들다!

발행인 오정현 기획 특새 TFT 발행처 사랑의교회 www.sarang.org